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08년도 제7차 회의록)

1. 일 시 : 2008년도 11월 28일(금) 07:31 ~ 9:22

2. 장 소 : 프라자호텔 오키드홀 (4층)

3. 참석위원 :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박해춘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중 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허영구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헌기 위원

참여연대

임종대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장병구 위원

대한YWCA연합회

강교자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장 영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위원

4. 불참위원 : 기획재정부

김동수 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정학수 위원

지식경제부

임채민 위원

노동부

정종수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위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배정근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박원식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개발연구원

고인식 위원
현정택 위원

5. 배 석 자 : 연금정책관

최희주(간사)

보건복지가족부연금재정과장

이스란

해외투자실장

곽대환

운용전략실장

홍성기

기금운용본부장

김선정

6. 보고안건 :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 조기 해지』

『2009년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TFT 운영계획(안)』

7. 회의경과

(회의시작 7시 31분)

- **최희주 간사**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아침 일찍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교자 위원님이십니다. 강교자 위원님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국내 외적인 금융불안이 실물경기로 전이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내년 경제전망도 여러 곳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정부도 실물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경제가 하루속히 다시 활력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안건은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 조기 해지 등 보고안건 두 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히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듣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 보고사항 : 『0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회의록』

- **위원장** : 먼저 2008년 10월 23일 개최된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가 『200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보고함

- 위원장 : 회의록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된 내용대로 2008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찬을 드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고사항 :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 조기 해지』

- 위원장 :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될 안건은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 조기해지 등 보고안건 두 건입니다. 먼저 [보고안건 08-10호]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 조기 해지』에 대해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가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 조기 해지』를 보고함

- 위원장 :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구 위원 : 31페이지에 11월 현재 2,000억 불이 안 되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요. 그 통계까지는 못 잡으셨습니까?
- 최희주 간사 : 매달 한국은행이 고시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시통계는 10월말 통계입니다.
- 허영구 위원 :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 중에서 유로머니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이스란 과장 : 제가 기재부 쪽에 확인을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30~4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외환보유고 감속같이 이루어진다고는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 허영구 위원 : 유로머니가 가치가 하락을 20~30% 했다고 하는데 그것

이 여기 2,123억 달러에 반영이 됐습니까?

- **이스란 과장** : 10월 가치의 유로가치 하락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추가하락 분은 11월에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 **장지중 위원** : 이번에 11억불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 **최희주 간사** :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기로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요청은 안하는 결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면 계약조건이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이자를 좀 더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기금운용자로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장지중 위원** : 우리 입장에서는 해지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 **최희주 간사** :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략적인 자산배분이라고 해서 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해외 당초에 목표로 했던 어느 정도 자산비중이 있습니다.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전략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실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당초에 결정했던 전략을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보고사항 : 『2009년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TFT 운영계획(안)』

○ 위원장 : [보고안건 08-11호]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 TFT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가 『2009년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TFT 운영계획(안)』을 보고함

○ 위원장 :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두 분이 참석하시는 것이 달라졌고 종전에 하던 기능에서 중기자산배분에 대한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 간다는 점이 종전과 조금 달라진 점입니다.

○ 최희주 간사 : 또 하나는 지난 번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가입자대표 분들이 이들 전문가들 외에도 본인들이 직접 회의하는데 참여해서 점검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은 가능하다고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 위원장 :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TFT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거니까 특별히 팀 구성에 의견이 없으시거나 다른 좋은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용하 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네, 말씀하시죠.

○ 김용하 위원 : 중기자산배분 TFT를 가입자단체를 참석시켜서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시점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 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FT 구성은 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운용본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장기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내와 해외투자배분비율이라든지 국내에 있어서 주식과 채권 투자배분비율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획단 같은 것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와 TFT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중장기 전략수립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김용하 원장님의 제안에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종대 위원 : 좋으신 말씀입니다.

○ 최희주 간사 : 실무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해야 될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과연 국내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갈 건가,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할 건가, 해외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나 자산목표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 리스트 업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게 내년에 마련이 되면 기금운용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김용하 원장님의 의견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견뿐만 아니라 실무 TFT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 김용하 위원 : 네.

○ 최희주 간사 : 같이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된 연구비예산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TFT 운영과 같이 갈 수 있겠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해춘 위원 : 제가 듣기로는 이게 TFT를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것 하나하고 투 트랙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 최희주 간사 : 저희들이 TFT 하면서 저희 팀만 운영해서 하는 것이 아

니고요, 41쪽 도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다 초청해서 국내경제 전망이나 자산군별 기대수익률하고 위험수준 전망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능할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춘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FT활동을 하면서 TFT 스케 줄을 보면 내년 5월 초에 최종(안)이 마련돼서 보고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9년도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을 예측한다든지 재정추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사안에 대한 추정과 검토를 하는데 특수한 상황의 한 복판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기자산배분(안)은 1년 단위로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9년도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특히 해외투자전략 같은 것, 지금 해외투자 전략이라는 것이 자산배분측면에서 바깥에 나갔다가 국내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해외시장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즉각적인 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통해서 자산배분의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2009년도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자산배분(안)을 수정을 플렉시블하게 가지고 가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TFT활동을 할 때 각 여러 가지 사안들을 최적화 모델을 설정을 한다든지 자산배분모형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원 되는 통계 수치나 모든 변수가 굉장히 특이한 하나의 변동성이 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 **장지중 위원** : TFT멤버에 경제 쪽의 인사를 한두 명 넣어서 같이 토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 **최희주 간사** :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09년도 자산배분(안)은 지난번 장관님 말씀이 있으시고 저희들도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임종대 위원 : 발제하신 내용하고 관계없이 기타 안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기금의결권 행사 지침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기금위에 보고가 됩니까?

○ 이스란 과장 : 의결권행사지침이 있고요. 혹시 수정사항이나 바꿨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지 조사를 했고요. 취합을 해서 변경내용이 있으면 12월에 올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정하지 않아도 되면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 임종대 위원 :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 이스란 과장 : 일부조항은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종대 위원 : 다음 회의 때요?

○ 이스란 과장 : 12월에 또 회의를 합니다.

○ 임종대 위원 : 지금 11월이군요, 이게 마지막 회의인 줄 알았습니다.

○ 위원장 : 아닙니다.

○ 임종대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은행채 매입이 8,000억 정도 됩니까?

○ 김선정 본부장 : 네, 약 8,500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 임종대 위원 : 매입조건이 불안정한 걸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선정 본부장 : 후순위채의 경우에는 만기가 5년 6개월짜리로 발행이 됐고요. 발행금리는 7.7% 정도에 발행이 됐습니다.

○ 임종대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은행채는 담보 없이 된 거죠?

- 김선정 본부장 : 그렇습니다.
- 임종대 위원 : 실무평가위원회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담보장치 하고 거래조건을 보장 받아라, 그런 요구사항을 기금운용 본회의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하라는 요구가 왔는데 어떻습니까?
- 김선정 본부장 : 위원님, 제 생각에는 시중은행에 신용도를 저희들은 믿고 사실은 매입을 한 것입니다. 발행은행에 어떤 담보를 요구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임종대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앞에 경제상황에 대한 발제내용에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을 중심으로 미국금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무담보로 은행채를 8,500억 가량 매수를 해서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진다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 김선정 본부장 :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 은행채는 AA등급의 은행채였고, 은행이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실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는 그 정도의 안전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매입한 것입니다.
- 임종대 위원 :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만 신용도를 얘기한다면 AAA정도 같으면 미국에서 부도나서 다 넘어진 금융기관도 전부 국제적으로 수준에서 다 AAA 받았던 금융기관들입니다. 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그것보다 더 튼튼하다 그렇게는 이야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기금운용위 차원에서는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발제내용에서도 나오네요. 은행채 매입을 통해서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할 자금시장 부문에서 금융분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면 앞으로도 은행채 매입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어디인지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기금 쪽에 시선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리 기금운용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기금운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4개월 마다 한번 씩 만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 본들 이게 얼마나 실제 운용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고 보고만 받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데 자주 언론에 거론되는 이유가 정부가 자꾸 기금에 손 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나오는 이유가 결국 기금운용 뒤에 배경이 정부라는 심증을 자꾸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야기인 즉, 이런 은행자본을 늘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은행채 매입을 적극 정부에서 권유할 경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기금이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한 8,500억이라는 규모도 불안하고 앞으로 이것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정 규모 이상 이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실무평가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금운용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부담이 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쪽에서는 압력이 오고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 없고 일단 기금운용위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 **장지중 위원** : 국책은행은 정부에서 보증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어떤 은행의 은행채를 매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은행이나 국책은행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일반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데서 지급보증 받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선정 본부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4대 메이저를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증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부도를 외부에 알리는 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멸절한 은행들을 저희들이 조금만 일시적인 유동성을 조절해 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국내의 우량한 은행들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4대 시중은행은 지금 국민연금조차도 국민들한테 채권을 팔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부실한 은행이라고 공표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우량한 은행들을 아주 위험한 은행으로 탈바꿈 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오히려 안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위원님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셨습시다만 저희들도 열심히 봤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은행별 한도를 리스크한도를 나름대로 따져서 한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보기에 5년 6개월 안에 우리나라 4대 주요 시중은행이 부실화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나 금융위에서 실제 그런 압력에 들어온다면 저는 나름대로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주문이 온다면 지금까지는 안 왔습시다만 온다면 당연히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투자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춘 위원** :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에 지급보증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국민연금에서 은행들한테 신용보완을 요청하면 은행이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자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997년도에 IMF 때는 우리 기금의 사이즈가 28조 4,000억이었어요. 그리고 주식투자비율이 1조 4,000억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대부분 채권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그때는 외환위기였죠.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금의 사이즈가 너무 적어서 또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위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했습니다. 또 시장도 우리 국민연금에 기대도 안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백조가 투자된 금융시장이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거

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손실을 받는 것이 기금입니다. 우리 자산을 보호하는 자위차원에서도 시장의 붕괴를 어떠한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후순위채 문제만 보면 은행이 위기에 오면 국가가 부도가 옵니다. 그러면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 기금도 시장이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국가가 있고 시장이 있어야만 되는데 후순위채도 이렇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시장에 내다팔고 있어요. 국민들은 똑같은 상품을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파는 은행들이 창구를 통해서 파는 후순위채보다 더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지금 후순위채를 매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은 전쟁상태이고 위기상황인데 이것이 다 지나갔을 때는 우리는 위기 때 국민연금은 무자비한 돈을 버는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장상황, 시장이 부수어지지 않는 것도 감안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전성, 수익성 이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어떠한 요청이나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그런 말씀과 조언과 당부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크게 시장도 생각하고 국가도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연금을 챙겨서 위기를 같이 빠져나가야지 거기가 부수어지면 우리는 절대 살아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이사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지만 임종대 대표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들으셔야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일정한도 이상 매입할 때 일정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겠지만 일정한도 이상 매입할 때 이것이 진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인가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 논의자체를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까 얼마 이상을 할 때 그것을 해야 되고 어떨 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 논의를 하시고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이 안정성이라는 것이 말로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도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참여연대에서 하시는 얘기를 실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저희들이 오늘은 통화스왑 관계 때문에 조기 회의를 했습니다만 원래 예정됐던 12월 회의에서 그 문제를 좀 더 논의하고 결정을 지으면 어떨까요.

- **허영구 위원** : 위원장님, 회의가 끝나는 시점인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연장선상인데 본부장님께서서는 잘 판단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그런 느낌을 조금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기금운용에 대한 특히 증시부양과 관련해서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연금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건데 하락장 계속 이어질 때 연기금은 계속 투입해서 부양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노조 쪽 간부인데요, 인터넷 매체에서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주식이 KOSPI 지수가 900에서 1,100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500이다 그러면 400, 500은 무엇으로 되냐, 연기금을 비롯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정권 차원에서 강제로 부양시키고 있다 그런 것이 토론회에서 발표가 됐고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을 받거든요. 당신 기금운용위원인데 실제 그러냐, 저도 사실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민간투자자들이 다 빠져 나가고 있는데 국민연금만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방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답변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12월에도 회의를 하니까 10월초부터 해서 12월 말 석 달 정도 KOSPI 지수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주식 매입이라든지 추가로 투입됐던 거라든지 이미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가격변동이

나 그런 것을 KOSPI 지수 변동하고 물론 원 달러 환율이나 KOSDAQ이나 여러 가지 도표를 해서 그런 자료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명성도 될 수 있고요. 연기금이 230조 마치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투입돼서 떨어지면 연기금 투입하면 외국인 투자자 팔고 또 떨어지면 연기금 투자해서 또 팔고 나가고 사실 잘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해명성 자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회의 때는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선정 본부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최희주 간사 :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릴 부분이 지난번 실무평가위원회 때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우려표명은 있었는데 저희한테 집행과정 자체를 일정 규모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 권한 자체를 사실은 큰 전략이나 자산운용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이고 그 의결된 결과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테크니컬하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평위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렇게 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원래 1년에 자주 열리는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8월에 부임해서 기금운용위원회 그 이후에 오늘이 세 번째죠. 거의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장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을 주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모니터링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때그때 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종대 위원님께서 주신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고유권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렇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전문가가 지금 실무위원회에 들어가기로 결정

이 되어 있으니까 실무위원회에서 더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해춘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압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는 있지만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우면 돌출적인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돌출적인 요구 같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기금운용위원회가 그것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는 그 점도 유의해서 운용해 주시는 것이 보다 슬기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신민영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금운용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잘 나갈 때는 별로 걱정이 없으신데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여기 회의에 나오는 자체가 마음이 무겁고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기를 모으고 또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인 만큼 조금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8일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 9시 22분)